

세계연합신문  
모바일 보기

2025  
APEC  
INCHEON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  
세계 최대 비영리 헌금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리도시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제 1259 호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 가동…‘교권침해 은폐’ 교장, 징계 추진

교육지원청에도 변호사 포함된 통합민원팀 구성…단순 민원, AI로 처리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공개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



계속되는 교사들의 집회

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

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급 기관이 대응해야 할 민원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송원기 기자

##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검찰단장·법무관리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정당한 민간수사기관 이첩”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을 수사한 뒤 헌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해선 군사법원법상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고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해병대 사령관도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

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박 전 단장을 암수색하며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 헤밍수고’라는 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에 대해선 “유 관리관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

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는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 했다.

/ 양호준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한총리 “치안 최우선 경찰 재편

###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 을 가지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 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

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 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중증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 “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임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TV(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 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관련,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의 원인과 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 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강민성 기자

함께하는  
100년농협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의 30% 상당 달려품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제외)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 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당정, 국회서 예산안 관련 협의

국민의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일시: 2023. 8. 23.(수) 8:00 장소: 국회 본관 228호

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을 반영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충남 서산 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예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 송원기 기자

### 광주 亞물역사테마체험관·전남 AI농산업융복합지구·대구도시철도 엑스포선 등도 반영

#### 부모급여 인상·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케어 도입·대학생 저리 대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

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호남권인 광주는 아시아 물

산안에 반영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출생 아



인사청문회 참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 이동관측 “YTN, 추가취재 않고 허위사실 보도”…고소장 제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사장 등 임직원을 23일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 날 아닌 한참 뒤’,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다.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을 상기했는데도 청문회가 한창일 때 3건의 허위사실을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한 건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YTN 측이 해당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흡집내기에 치중해왔고, 금기야는 지난 10일 분당 흥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 임직원 형사고소에 5억 손배소도

#### “대응 불가한 청문회중 허위사자 보도는 악의적”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이날 소장에서 “YTN 측은 보도 3주 전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 한다’는 A씨의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사실에 점면으로 반박에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도가 이 후보자가 보도 내용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 진행 중 나온 점, 위증 시 고발을 포함해 공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졌다”고 재차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청문 도중에도 과거 입장문과 방통위 취재기자들과의 대면에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분당 흥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냈던 YTN 임직원들을 최근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이번 보도에 대해선 “후보자에 대한 계속된 흡집 내기 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 보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고소장에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 박민석 기자



투입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나아가 LH는 실제 입찰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 업체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추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런 환수 조건도 같이 고지할 계획이다.

LH가 주요 발주처라는 점에서 업체들이 이를 고려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업체들이 보상 규모에 문제를 제기,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한준 사장은 지난 21일 회의에서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밝혔다.

/ 김강우 기자

## I Dream 로봇친구

“엄마~ 로봇친구가 생겼어요~”

지민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여는 KEY가 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 ‘현역의원 돈봉투 제공’ 빼고 기소한 검찰…수사 보안에 신중

### 경선캠프 불법자금 유출 의혹 수사 활발…송영길 소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현역 의원에 대한 돈봉투 제공’ 부분은 제외했다.

최대 20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들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수사내용 유출을 막기 위해 거듭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끄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 씩 총 6천만원을 살포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는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 역 의원 19명의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소하면서 살포 혐의는 제외한 채 자금이 윤 의원의 손에 들어온 과정까지만 공소사실에 담았다.

검찰은 수수 의원 특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 보안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기소 이후 공소장이나 사건 기록 등 통해 수수자 특정과 관련한 내용이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외부로 유출될 경우 증거 인멸 시도 등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윤 의원이 살포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는 보강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윤 의원이 추후 정치적 재기를 위해

서라도 송 전 대표나 동료 의원 다수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 “윤관석 추가조사 필요, 효율성도 고려”…속도는 고민

만큼 확실한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키맨’인 윤 의원의 태도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구속 이후에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수수 의원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수수 의원 특징이 완벽히 진척 상황을 법원에 설명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자료와 윤 의원의 진술을 종합해 수수 의원들을 확정한 뒤 윤 의원의 돈봉투 살포 혐의와 일괄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 의원에 대한 조사 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혐의를 완강

하게 부인하는 현역 의원들을 출소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과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미사연)를 지금 조달 창구로 보고 최근 몇년 간의 후원금 내역과 금전 출납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압수수색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미사연은 3억원대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전남 지역 기업인에 대해서도 캠프 식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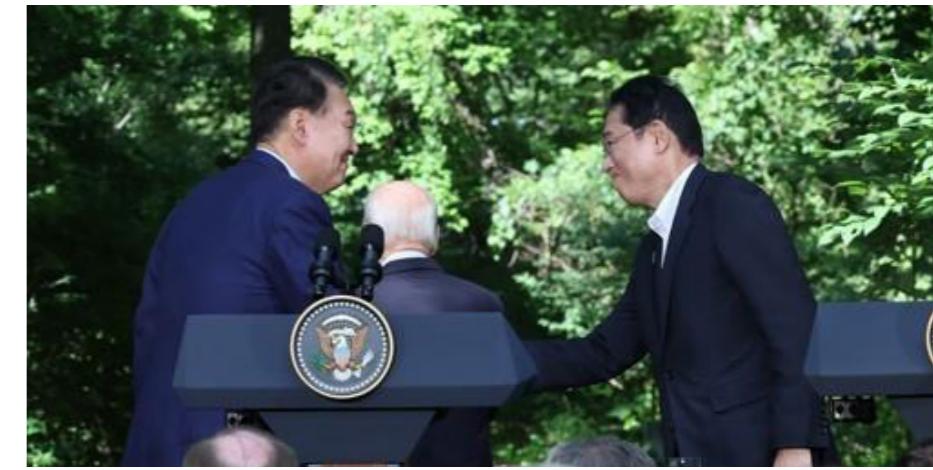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유입이 확인되므로 (관련 내용이 정

리되면) 송 전 대표는 언제든 불러 조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셀프 출석’했지만, 수사팀과 면담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그는 최근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강제수사에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 송영길을 소환하라”고 반발했다.

/ 김희성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 기자회견 마치고 악수하는 한일 정상

## 日 언론 “기시다, 한국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뒤로 방류 미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24일로 정하게 된 이유 중 하

나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보도가 23일 일본에서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은 국내외 배려… 어획기 전 데이터 공표·한국 사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류 개시일로 24일이 정해진 것은 어민에 대한 배려와 한국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9월 초부터 저인망 어업이 재개되는 만큼 그 전에 방류에 따른 방사선 측정 데이터를 공개해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찍부터 8월 중 방류를 생각하고 있었고 애초에는 8월 중순이 유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당초 예고된 8월 말에서 18일로 앞당겨지면서 8월 하순으로 방류 개시일이 늦춰졌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등으로부

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뒤집어쓰면서도 방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류 전후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애초에는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일본 명절인 오봉 연휴(8월 13~16일) 직후 방류를 개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한미일 정상회의 뒤인 8월 하순으로 훈련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입각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류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백준우 기자

**KB Pay로 결제 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KB 국민카드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 김봉현 “탈옥 작전’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

### 검찰, ‘탈옥작전 계획서’ 재판부에 증거 제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계획을 실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탈옥 작전 계획서’가 구체성이 있다며 실제로 이행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재판장)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탈옥계획서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 계획서에는 작전팀과 구출팀 등 탈옥을 위한 역할 배분과 필요 인원 등이 세세하게 담겼다.

또 구치소로 복귀할 때 영화처럼 본인이 탄 호송 차량을 조력자에게 들이받게하거나,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한 뒤 소란을 틈타 달아 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겼다. 검찰 내부 조감도와 구치소 내부 구조를 직접 그려두기도 했

다.

이에 대해 김씨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며 “제가 (탈옥계획서를) 쓴 건 맞지만 실행하기 위해 계획 세운 게 아니다. (동료 수감자와 주고받은) 서신이 오픈되는 바람에 일 이 커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수감자 A씨에 탈옥 성공을 대가로 20억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감자의 말에) 동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실행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20억원을 주겠느냐”고 답했다.

검찰이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작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거듭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글씨를 보니 내가 쓴 게 맞다”는 식으로 답했으나 “A씨와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적다가 이 꽂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이 작성한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즉 변호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면 할 말은 없으나 공소사실 입증과는 관련없는 자료”라고 하자 검찰은 “양형에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맞섰다. 김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도 실제 탈옥을 계획한 게 아니라 동료 수감자의 꿈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누나(51)가 구치소 밖에서 수감자 A씨의 지인을 만나 탈옥 척수금 명복으로 1천만원을 건넨 데 대해서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다.

/ 양호성 기자

## 영등포구, 9월2일까지 묻지마 범죄 대비 민관경 합동순찰



이달 4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순찰은 영등포경찰서·외국인 자율방범대와 함께한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경우 토요일에도 수시로 순찰한다.

이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을 둘러보고 특히 순찰차 통행이 힘든 다세대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관내 유흥시설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죄 신고 안내문과 범죄예방 홍보물을 배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합심해 빈틈없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준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2일까지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채상병 사건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모레 출범

##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은 심의위원 추천 요청 거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논란을 다룬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권의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 관련 민간학회로부터 10여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며, 회의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심의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으며, 심의위원장을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며 지난 14일 수사심의 위 소집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

아들여 지난 16일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추천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객관성 유지를 위해 수사심의위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국방부에 전달했다. 심의위 구성에 난항을 겪던 국방부는 권익위와 민간 학회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7~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했다"며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 조규현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윤재옥 "오염수 4~5년 뒤에 오는데 野는 또 반일·공포마케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을 하루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규탄대회와 장외 촛불집회를 여는 데 대해 "또다시 반일과 공포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관련)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

## "중요한 건 과학·팩트…오염수 먼저 달는 美·加는 왜 반대 안 하겠나"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기념 TF 회의에서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겸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겸증을 거듭해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인근 수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 남연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지명 첫 발언은 "사법신뢰 회복"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재판 권위 회복 위해 성찰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앞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낸 '소신'의 연장선에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발언이나 기고문에서 사법의 정치화나 사법부 신뢰 저하에 우려를 표해 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장을 밝히고서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 최병찬 기자

## '선거 홍보물 추락' 김용민 의원에게 법원 "600만원 배상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홍보용 구조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 31단독 윤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A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약 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경기 남양주시 내 2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김 의원의 선거 홍보용 가설 구조물이 1층 편의점 출입문 앞에 추락했다.

당시 김 의원은 남양주 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간판과 천막 등이 파손됐으며, 냉동·냉장 제품도 24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돼 폐기해야 했다.

또 구조물 추락 과정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던 업주 A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73일간 휴업한 뒤 결국 폐업했다.

그해 6월 A씨는 김 의원에게 시설·집기류 파손과 제품 폐기기에 따른 손해 1천540만원, 휴업 손해 1천460만원, 위자료 1천



만원 등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차례 금액 조정에 나섰으나 양측의 거부로 결렬됐다. 재판이 재개됐으나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손해 감정액이 나오지 않자 법정 공방은 3년 넘게 이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최소한의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선고했다.

/ 노승만 기자

## 이재명 "日핵오염수 방류, 제2의 태평양전쟁…오염수 테러 규탄"

### "홀로 위험작업 중 목숨 잃는 사례 끊이지 않아…'2인1조' 법률로 제도화"

**국민의 근로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24일 시작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

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 신지호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고객 보호는  
신한의 꺼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금융은 안전한가요?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이룰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어떤 신한을 만나더라도  
당신의 금융을 가장 먼저 지키겠습니다.

신한의 중심에 소비자 보호를 바로 새기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동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AI 신한면세점 신한국손해보험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판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면세점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인근 수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 남연우 기자

#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JMS 여독사 3명 추가 구속영장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고소한 신도 16명으로 늘어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종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를 방조하는 등 가담한 혐의로 JMS 간부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지검은 이날 JMS 목사 A(29·여)씨 등 여성 간부 3명에 대해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추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명석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들키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



JMS 정명석(왼쪽)

로 고소한 여성은 16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B(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C(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JMS 2인자' 김지선 씨를 비롯한 여성 간부 6명 등 조력자들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께 B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JMS 여성 간부 6명이 성범죄가 드러나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들키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기소됐다.

/ 송진영 기자

## '254억 횡령' 유혁기 구속기소…유병언 일가 수사 마무리

유씨 "횡령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일부 진술 거부하기도



미국서 9년 만에 강제송환 된 유병언 차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50)씨가 세월호 참사 9

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천

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액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계열사로부터 받은 사진값 선금으로 161억7천만원이다.

또 유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빼돌린 69억5천만원, 누나 섭나(57)씨가

운영한 디자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자문료로 받은 21억6천만원, 고문료 비용 1억9천만원 등도 횡령 액수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끼리 금전 거래는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일부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래였다"며 "계열사로부터 받은 사진값은 모두 전시회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애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유씨의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으나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

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50억원대로 줄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 검찰이 유씨를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306억원 횡령과 125억원 조세포탈 등 유씨의 또 다른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기 위해 미국 측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씨가 이날 기소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수사는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 전 회장 일가 6명, 측근 5명, 계열사 사장 9명 등 모두 20명이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지난 4일 국내로 그를 강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사업상 후계자였던 유씨는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의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며 "2014년부터 유씨 재산 61억원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천11억원을 압류하거나 동결 조치했다"고 말했다.

/ 권준현 기자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7분께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지난 20일 오전 경기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서기 전 "왜 협박글을 올렸나",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이민웅 기자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거래소



## 지구 탄소 다이어트 K-Energy 플랫폼, 전력거래소

우리가 삶을 빼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지구도 탄소를 빼면 더 건강해집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행기관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365일 24시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탄소제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가 "K-Energy"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 “러 크렘린궁서 5km 상업지구서 드론 폭발…공항도 일시 폐쇄”

‘모스크바 시티’ 지난달부터 세 차례 피습…우크라 드론 공격 잇따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 시티’에 23일 새벽(현지시간) 또다시 드론(무인기)이 날아들어 건설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고 리아노보스티·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이날 모스크바의 다른 지역도 무인기 공격을 받았으며 그 여파로 모스크바 인근 공항들의 운영도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본토 무인기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날 2대의 무인기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오다 요격됐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새벽 방공망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주의 모자이스코예 구역에서 무인기 1대를 격추했고 두 번째 무인기는(모스크바 시내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 시티’에 건설 중인 건물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현지 재난당국은 모스크바 시티에 지어지던 건물이 경미한



지난달 30일 드론 공격받은 모스크바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 시티’ 내 고층 건물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시티는 크렘린궁에서 약 5km 떨어진 비즈니스 센터로 20여 층에서부터 100층이 넘는 여러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센터엔 일부 정부 부처와 기업 사무실, 상가 등이 입주해 있다.

모스크바 시티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두 차례 드론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새벽 3시께 모스크바 시티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모스크바 시티 외에도 시내 북쪽 힘기 지역과 앙가르스카야 거리, 북서쪽 보로티스카야 거리, 미치노 지역 등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또 이날 드론 공격을 전후해 모스크바 외곽 세레메티예보, 도모데도보, 브누코보 공항 등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스크바에선 지난 5월 크렘린궁을 겨냥한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모스크바 시티가 두차례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단지 내 건물 일부가 파손되고 창문들이 부서졌다.

뒤이어 이달 18일에도 방공시스템의 요격을 받은 무인기 파편이 모스크바 시티 근처 전시관인 ‘엑스포 센터’에 떨어져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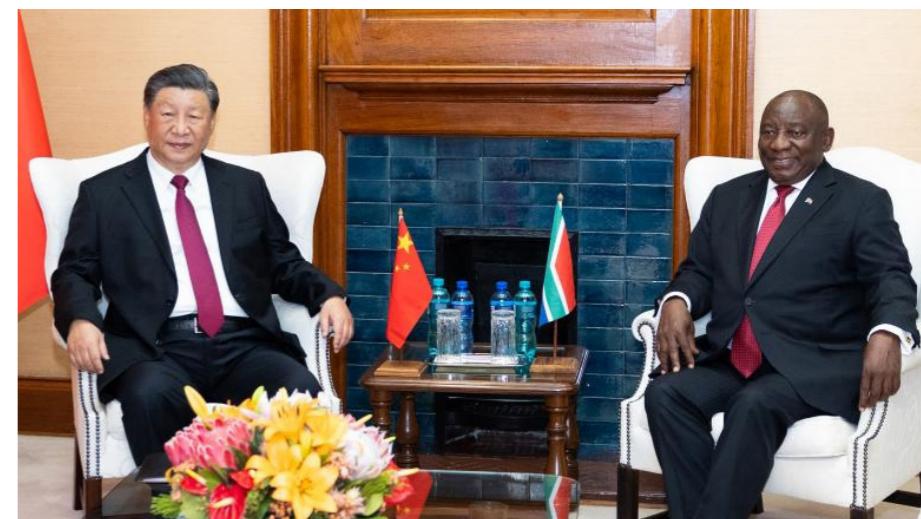
뒤이어 전날에도 모스크바와 러시아 서부 지역이 4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지난 19일엔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까운 노브고로드주의 공군기지에 세워져 있던 전술·전략 폭격기 투폴레프(Tu)-22M3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완전히 불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도 드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드론 공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이현수 기자



시진핑, 美견제하며 개도국 협력 강조

“어떤 나라, 우리 압박”

남아공서 열린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폐막식 연설

는 것은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웨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쿠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중국 포위에 나선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모든 나라는 발전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며 “중국은 여러 나라와 협력해 공동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국가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과 협력해 대립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안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위기설을 일축하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발언도 잊지 않았다.

/ 홍민수 기자

## 태국 총리에 세타 타위신 선출…탁신계, 군부와 공동 집권

탁신 前 총리,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탁신계 정당 집권 확정



세타 타위신 태국 차기 총리

태국 제30대 총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60)이 선출됐다. 이날 열린 태국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에서 세타는 프아타이당이 결성한 정당 연합의 단독 후보로 지명돼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세타는 태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의 전 회장으로, 지난 5월 열린 총선을 앞두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이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141석을 차지해 제2당이 됐다.

프아타이당은 애초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 중심의 민주 진영 앤드연합에 참여했으나,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한 전진당의 피타 린짜仑 대표가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제하고 왕실모독죄를 개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부 정당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한 5월 총선 이후 태국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다.

전진당 피타 후보가 지난달 13일 첫 의회 투표에 나섰으나 보수 세력의 반대로 총리로 선출되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야권 연합은 다시 피타를 후보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거부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투표가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피타 후보는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 직무가 정지됐으며,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도 남아 있다. 2차 투표 무산과 관련해 전진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리 선출 투표가 미뤄져 왔다.

현재는 지난 16일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재지명을 허용하지 않은 의회 결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청원을 각각했다.

차기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대화된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날 총리 선출로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전진당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당분간 정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

망된다.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당한 뒤 해외에서 생활해온 탁신 전 총리는 프아타이당의 집권을 확신한 듯 이날 오전 귀국 했다. 그는 8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최민숙 기자



## 사우디 이민자 학살 진실공방…유엔 우려 속 美 전면조사 촉구

인권단체 “총·포로 수백명 살해”…사우디 ‘사실 아니다’ 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밀입국하려던 아프리카 빙국 출신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무차별 학살됐다는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수비대가 이민자들에게 총을 쏘고 포탄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한다. 사우디는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은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의혹들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사우디 정부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에 착수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우디 국경수비대는 미국 정부의 자금지원이나 훈련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HRW는 ‘그들이 우리에게 총알을 비쳐온 퍼부었다’ 제하의 보고서에서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만 최소 655명의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이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발간한 보고서가 “일부 매우 심각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상황

을 인지하고 있고 일부 접촉을 가졌지만 “(사우디) 국경의 상황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전이 벌어지는 자국을 떠나 부유한 사우디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던 이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는 포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공격을 받은 이주민들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미국은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와 80년 가까이 동맹 관계를 이어오면서 군사협력을 유지해 왔다.

그는 “우리는 유엔에 대한 우려를 사우디 정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우디 당국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에 착수하고, 국제법에 따른

/ 민종훈 기자

중소기업  
직장인의  
통장 테크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잔액 50만 원 이상 금리 0.3% 실적 보유 시, 당월 1일~월말에 우대혜택 제공

금리 우대  
인 3.0% (23.6.30 현재세대)  
매일 100만 원 이상 출전해도 기초금리 300만 원(1회)

수수료 무제한 면제  
당월 10회까지 출금수수료,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

최고 연 5.7% (23.6.30 현재세대)  
고시금리 대비 최대 3.5%, 금리비교 실적 보유 시 연 2.2%

증권사 및 저축은행 고급수수료 면제 및 저축은행 저축금리 면제

## 이마트가 가져갔던 SSG푸드마켓, 다시 신세계백화점 품으로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016년 이마트에 넘겼던 프리미엄 슈퍼마켓 'SSG푸드마켓'을 다시 찾아온다.

신세계는 22일 SSG푸드마켓 청담점과 도곡점의 토지 및 건물을 이마트로부터 양수했다고 공시했다.

양수 가액은 1천298억2천5백만원이며, 양수 목적은 백화점 프리미엄 식품관 사업의 경쟁력 강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12년 프리미엄 슈퍼마켓으

로 SSG푸드마켓을 선보였고, 2016년 그룹 내 프리미엄 슈퍼 사업 주체를 이마트로 일원화해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다며 사업을 이마트로 넘겼다.

이후 도곡점과 청담점, 마린시티점, 목동점 등 4개 점포 중 마린시티점과 목동점이 문을 닫으면서 현재 2개 매장만 남았다.

신세계백화점은 SSG푸드마켓 청담점과 도곡점을

재단장해 새로운 공간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최상급 식재료부터 글로벌 식료품까지 프리미엄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식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이번 자산 양도와 관련해 "사업재편에 따른 자산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 황윤성 기자



찢기는 옥일기 현수막

## 전경련, 55년만에 한경협으로 새 이름…4대그룹 일단 합류 새 수장에 류진 풍산그룹 회장…“세계무대 ‘퍼스트 무버’ 개척 앞장설 것”



답변하는 전경련 류진 신임회장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산업부 승인은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전경련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2001년부터 전경련 회장단으로 활동해 온 류 회장은 미국상공회의소주 주최하는 한미재계회의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는 등 글로벌 무대 경험과 인맥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됐다.

류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기업보국의 소

명을 다하는 길이며, 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앞으로 출범할 한경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 등 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관에 명시했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 구성과 세부 운영사항 등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류 회장은 “단순한 준법 감시의 차원을 넘어 높아진 국격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윤리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사무국과 회원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헌장도 채택됐다.

윤리헌장에는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경영할 것을 약속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선도한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 한경연을 한경협으로 흡수 통합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절차상 한경협이 기존 한경연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 4대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한경협 회원사에 포함된다.

4대 그룹의 전경련 탈퇴 이후에도 삼성 계열사 5곳(삼성전자·삼성SDI·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SK 4곳(SK㈜,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네트웍스), 현대차 5곳(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LG 2곳(㈜LG·LG전자)은 한경연 회원사로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은 최근 논의를 거쳐 한경협에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4대 그룹이 법적으로 한경협 회원이 되는 시점도 산업부의 정관 개정 승인 이후다.

한편,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기업인도 아니고 여려가지 부족했음에

도 중한 임무를 맡겨 줘 감사하고, 6개월

간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

다”며 “앞으로도 전경련이 잘될 수 있도

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직간접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 제주도, 日원전오염수 대응 단계 격상 방사능 검사 확대

제주도가 일본의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발표에 따라 오염수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사기기도 확보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개편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며 “어업인 피해 발생 시 예비비를 들여 대응하는 한편, 국회 및 연안 5개 시도

## 김희현 정무부지사 주재 긴급 회의, 4단계 중 3단계 ‘경계’

제주도는 22일 도청에서 긴급 업무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1차산업 분야의 대응책을 논의해 이날부터 원전 오염수 대응을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높였다.

제주도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예상 피해 조사·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방사능 감시·수산물 소비위축 방지·어업인 보호 대책 등

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2021년부터 제주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방민호 기자

## GTX-C 노선 연내 착공한다…첫 계획 반영 12년만에 첫삽

국토부, GTX-C 사업시행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GTX-C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왼쪽 세번째)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 장관은 “GTX-C는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사인 GTX-C 노선 주식회사(현대건설 컨소시엄)와 GTX-C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여 만에 이뤄졌다. 당초 대상자 선정 직후 맺으려던 협약은 도봉 구간

지하화와 은마아파트 지하 통과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미뤄졌다. 양측은 상호 신뢰 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설계 관리를 맡은 국가철도공단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건설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연장 86.46km에 14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연내 착공해 2028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 민석호 기자

## 부산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부산바다  
방사능 검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의무  
표시 단속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 농축수산단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환영”

농축수산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22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협과 농민단체는 이번 조치로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고 농업인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1만원대 선물세트부터 10만~30만원대 세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이 참여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상황과 내수 경제 위축을 고려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명절기간 농축수산업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축식 농협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동향을 보면 20만원 초과 선물세트는 작년 대비 26.1%, 15만~20만원 세트는 13.3%가 늘었다”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이어 “농축수산물은 뇌물이나 금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랑스러운 먹거리”라고 강조하며 “식사가액 10만원 한도 상향과 선물가격에서의 농축수산물 제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대승적인 차원의 큰 결정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에서도 수산물 소비가 증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 최병문 기자

## 서울시, 무차별범죄 현안회의…“유관기관TF 꾸려 대책 마련”

행정1부시장 주재 CCTV·여성안전 점검…“시 차원서 할 수 있는 것 시작”

서울시는 최근 잇따르는 시내 흉악범죄에 대응해 자치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김의승 행정1부시장 주재로 ‘무차별범죄 예방 현안회의’를 열어 시급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각 지역 CC(폐쇄회로)TV 배치부터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안심보안관 등 시가 운영해온 생활안전 프로젝트의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신림동 야간 성폭행 현장 둘러보는 오세훈 시장

현행 정책의 개선할 점을 살피면서 이 중 정부나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정

책은 무엇인지,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내용이 있는지도 논의했다.

## 서울 한강-고양 대화천-파주 평화누리 자전거길 10월 개통

철책선 0.8km 제거…한류천·행신천 수변 등엔 산책로 조성



일산서구 대화천 수변 산책로

경기 고양과 파주, 서울을 잇는 수변 자전거길이 연내에 완성되고 다양한 하천길 연결 사업이 추진된다.

22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 한강과 고양 대화천, 파주 평화누리를 연결하는 수변 벨트 조성 공사가 이르면 10월 말 마무리된다.

시는 군 시설에 가로막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일산서구 법got지하차도와 대화천 하구까지 0.8km 구간의 철책선을 걷어내고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서울시는 최근 벌어진 신림동 성폭행 살인과 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등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경찰의 책무이지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승 1부시장은 “서울시는 자치구 및 경찰·소방 당국 등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18일 신림동 성폭행 현장을 방문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셉테드) 확대·특별 TF 가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송원기 기자

또한 일산서구 킨텍스 수변공원과 체육공원 인근의 철책선을 없애고 보행 네크를 설치해 한류천과 한강 하천길을 잇는 사업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 순환선 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폐쇄한 자유로 분기점 구간을 개발해 일산동구 도촌천-덕양구 대장천·행신천-한강을 연결하는 산책로도 조성한다.

이동환 시장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와 산책로가 어우러진 수변 벨트가 완성되면 일산서구와 덕양구역이 이어지고 파주와 서울 접선도 크게 개선돼 산책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병호 기자

하며 기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며 “코스트코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동호 씨의 친형

동준 씨도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동준 씨는 “동생이 지속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kg 무게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제공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체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노승만 기자

## ‘파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주민설명회 내달 26일 개최

경기 파주시는 파주출판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립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부터 운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파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퓨얼셀 등 사업주 측에 사업 안전성 검증과 주민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파주출판단지에 추진 예정인 수소연

료전지 발전소의 발전 규모는 30메가와트(MW)이며 사업비는 약 1천9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판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의 반대로 사업 결정이 미뤄지다가 지난달부터 추진설이 돌면서 운정신도시 거주 주민과 산단 입주 기업들의 우려가 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시민 검증을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성 기자

## 경기도, 수표 보유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20억원 징수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9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으로 수표와 현금 이외에 고가 명품 가방 32점과 골드바·금 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골프채와 양주 등도 압류했다.

체납자 A씨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5억8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원의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택수색을 진행

하자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와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770여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 손호중 기자



예 시연·농악단 공연·한복 패션쇼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에 행궁을 개장해 ‘그림자 포토존’, ‘라인 조명’ 등의 색다른 볼거리 제공할 계획이다.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명소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진행하게 됐다”며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소중한 가치를 체험하고 멋진 가을 추억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 남한산성서 가을추억 만드세요

### ‘세계유산 명소화’ 프로그램

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과 추석을 포함한 휴일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통문화체험 ▲ 숲 생태학교 ▲ 연희 한마당 등을 주제로 열리며 전통문화 체험의 경우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



기자회견 병사가 아닌 외인사! 온열 사망사고임을 인정하라!

폭염속 카트 끌다 사망, 코스트코 故 김동호 산재신청

일시: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      기관: 미즈노 조사리아 어메이드 사연노동조합

기자회견 현장

##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 산재신청

### “사과·재발 방지 촉구”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체에 신청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 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호 씨는 연장 근무까지

Daishin 증권

# 신용이자 0%, 수수료 할인까지!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우대  
(유관비용만 징수)

미국주식 수수료  
**0.07%**  
(1년간, 거래 시 1년 연장)

신용 이자율 0%  
(1~7일)  
(기간 초과시 구간별 이자율 적용)



고객감동센터 1588 - 4488

\*국내/국제주식 수수료 우대는 이벤트 신청자에 한하여, 신규/미기래 고객 대상입니다. (-2023.8.31)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개인신용기록 및 금융복지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또는 특수 전 상황에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예속됩니다. \*상환등록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를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텁보비율을 미루 시 기한 내 추가기밀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처분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신용이자율은 연 0.9~2.5%로 자세한 내용은 당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는 0.197295%로 모바일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5~0.3%로 국가별/매체별 거래수수료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싱사법 제2-02268호 (2023.06.23~2024.06.22)

# 부산경찰, 전세사기 조직원 등 121명 검거…100억 넘게 챙겨

## 매입과 임대 동시 진행 수법…보증금 날린 임차인만 53명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19명 등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강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

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겼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 결과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확인된 피해자는 53명이었다.

A씨 일당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14명을 비롯해 분양업체

관계자 6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등기부상에 근저당도 말소돼 있고 다른 내용도 깨끗해서 계약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증보험 가입도 전부 반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B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강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노렸다.

이들은 부산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은 매수 자금도 없으면서 이를

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임차인 역시 실제

전세로 거주할 의사도 없으면서 명의를 제공했다.

대출이 이뤄지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됐고, 이후 각자의 수수료와 잔금 지급 등이 이뤄졌다.

임대인 23명과 임차인 23명이 B씨 일당에게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경문 기자



울산 탈핵단체 핵발전소 신규 건설 반대 기자회견

## 울산 탈핵단체 "신규 원전 건설 1기도 허용 못 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장기간 피폭 모두에게 위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단 한 기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 57개 정당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 수립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6개 추가건설이 포함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그 부지로 영덕, 삼척, 울산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순걸 울주군수 등 울주군 고위직에서 신규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울산시청 반경 24km 안에 11~12번째 핵발전소를 짓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세계에서 부산·울산이 유일하다"며 "핵발전소 반경 30km 안이 380만 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인 점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 박재호 기자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태풍, 올해 초 발표된 한반도 동남권 활성화층의 존재 등 종족적 위협 속에서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기의 핵발전소라도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날 일본 관계 각료회의에서 일정이 정해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친 피폭은 모두에게 위험하고 어린아이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오염수 방류하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 박재호 기자

## 전국 최하위 경남 농가소득 2026년까지 4위권 도약한다

경남도는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내 가구당 연간 농가소득을 2026년까지 5천700만원으로 끌어올려 전국 4위권으로 도약시키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도는 통계청이 전국 3천300개 표본농가(경남 33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소득 집계에서 최근 5년간(2018~2022년) 조사 대상인 9개 도지역 중 최하위인 9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도내 농가소득은 2018년 3천752만원,



2019년 3천692만원, 2020년 4천56만원, 2021년 4천421만원, 지난해 4천101만원

에 그쳤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농정분야 특별팀

(TF)을 구성해 학계·농민단체·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게 경남 농가소득이 낮은 원인과 대책을 자문하고, 경남도농업기술원 등과 논의해 지난 11일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 지난해 기준 경남 농가소득 4천101만원은 전국 평균인 4천600만 원의 89% 수준으로, 특히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차별화된 특화 전략 미흡, 영세·소농 비중 과다, 농업 구조상 많은 농업경영비 소요, 유통비 등 투입 등을 낮은 농가소득 원인으로 분석했다. / 곽도영 기자

## 삼성생명은 생각했습니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당신이 생각했습니다



## 당신을 웃게 할 소식이 되자

아플 때, 걱정될 때 생각나는 보험을 넘어 언제라도 반기운 보험이 되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든든하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좋은 소식의 시작

이 광고의 모든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추진 상황 점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추진위 출범

경북도는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채진원 신임 경북도 국제관계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경북도와 경주시, 경북 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가 참석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기관별 준비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보 강화방안과

협력체 21개 회원국이 순회하며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에 이어 2025년 다시 열리게 됐으며 개최 도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채진원 국제관계대사는 "타 시도와 차별성 부각을 위해 경주만의 강점을 발굴하고 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유치신청서에 담아야 한다"며 "경쟁 도시보다 한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은성 기자

## 제주 찾은 외국인 80% "한식 좋아요"

### 中 관광객은 K치킨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식(韓食)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2일 용역 계약을 맺은 신한카드 매출자료 데이터를 토대로 음식점업 대상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소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월간 신한카드 거래 데이터를 기반해 제주지역 전체 신용카드 소비금액을 추정한 자료다. 현금 사용 금액 누락 또는 음식점업 분류에 따른 누락 업소가 있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신용카드 소비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일본·대만·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제주를 찾은 8개국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만5천166명(크루즈 관광객 포함)이다.

이들이 도내에서 소비한 음식료 소비 금액은 207억3천400여만원이며 이 중 식사 관련 소비가 75%(155억3천여만원), 주류 및 음료 소비가 25%(52억1천만원)를 차지한다.

공사는 이 중에서 한식·중식·일식·서양식·분식·기타 음식 등 소비액 분석이 가능한 10개 업종별로 외국인들이 소비한 92억2천500만원을 중심으로 선호 음식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8개국 외국인 관광객은 소비액 80.6%(74억3천600만원)를 한식 음식점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유찬 기자



가능한 10개 업종별로 외국인들이 소비한 92억2천500만원을 중심으로 선호 음식 유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8개국 외국인 관광객은 소비액 80.6%(74억3천600만원)를 한식 음식점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도의회, 쟁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진실 알릴 것”



전북도의회 “쟁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구성…사실관계 확인”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새만금 쟁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꾸렸다.

전북도의원 30여명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응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도를 희생양 삼고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만큼 분명히 책임지겠지만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보도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응단은 도내 14개 시·군 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회와 중앙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 범도민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행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께 알리고 잘못된 거짓 정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하겠다”며 “도민의 명예와 자존감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송원기 기자



21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흠(맨오른쪽) 충남지사

##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경쟁에 충남도 촉각

### 전남교육청, 교사 전화번호 비공개…교육보호 활동 대책 수립



교육활동 보호대책 수립을 TF 협의회

전남도교육청은 22일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교육지원청에 번호를 배치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기획단(TF)을 꾸려 이같은 내용의 교육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챗봇을 활용하고, 대표전화로 접수 후 특이 민원일 경우 민원응대팀에서 대응한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와 민원 예절 안내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育지원청에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 변호사를 배치해 교원에 대한 법률 및 상

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책임배상보험도 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로 전환해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공존교실’과 온마을 온종일케어, 대안교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내에는 통합 학교지원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성폭력 등의 사안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한다. 위기 교원을 전담해 듣는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면 상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담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TF활동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교원의 안정적 근무 여건과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 및 생활지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백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유치 경쟁이 펼쳐지자 충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흥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시지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이 대구시치과의사회, 경북대 치과대학 등과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앞서 부산시와 광주광역시 등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나선 상황이다. 도는 윤 대통령이 충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약속한 만큼 공모 절차 없이 천안 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단국대, 오태임플란트, 충남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천안시도 지난 3월 설립 추진위원회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흥준표 대구시장에게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며 “지역 국회의원 11명 모두가 국회에 모여 대통령 공약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 강성균 기자

## “매운맛에 빠진다”…괴산고추축제 31일부터 나흘간 열려



난타’도 펼쳐진다.

이 밖에 블랙글래스 에어쇼, 인기가수의 축하 공연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다.

현장에서는 고추 청결 고추를 비롯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일회용기가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일회용 그릇과 컵 대신 나흘간 축제장에서 사용할 다회용기 10만개를 준비했다.

다회용기는 사용된 당일 회수, 세척센터로 보내 재활용할 예정이다.

김준수 축제위원장은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 괴산의 매운 맛에 흡뻑 빠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성호 기자

## 올가을 초등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되나…“차량 구할 수 없어요”

### 법제처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 차량” 유권해석…구조 변경 필수

강원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여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며 “따라서 올가을 초등학교 수학여행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

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 교육청은 규정에 맞는 버스가 도내에 10대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체험과 수학여행이 1천460건인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에듀버스는 314대 있지만, 모두 학생 통학에 이용 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계도 기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에 수학여행을 좌우해 취소해야 할 판”이라며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김소윤 기자

SAMSUNG

## Galaxy Z Flip5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com](#)을 참조하세요.  
설명문은 제작자의 저작권이나 저작권자로부터 제작된 저작물입니다.

\*클릭을 즐기 위해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클릭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전면화면 풀체인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samsung.com



우리금융그룹

# 함께 만드는 세상, 우리의 힘을 믿어요!



대회일정 | 온라인 예선작품 접수 2023년 08. 21(월) ~ 09. 18(월) 18:00  
본선대회 2023년 10. 14(토) 10:00 ~ 16:00 전쟁기념관(용산)

참가대상 | 유치원생 ~ 고등학생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시상 | 본선대회 참가자 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포함)

문의처 | 제26회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사무국  
☎ 02-512-5225

※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우리미술대회 홈페이지  
([www.woorimisul.com](http://www.woorimisul.com))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주최 | 우리은행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한중수교 31주년 기념…中단체관광객 31명, 24일 한국 찾는다

관광공사, 내달 중국서 '관광 네트워크 회복' 행사 잇따라 개최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최대 국유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와 한중 수교 31주년을 기념해 31명의 한국 단체여행을 공동으로 기획했다고 22일 밝혔다.

3박 4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오는 24일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관광공사는 공항 입국장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환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중국은 602만명이 한국을 찾는 제1의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관광 시장이었다. 이는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34.4%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 찾은 중국 단체 여행객들

관광공사는 방한 중국 시장 재개를 위해 한중 관광업계의 네트워크 회복에 집

중한다. 특히 9월 추석과 10월 국경절 연휴 등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내달 5일 청다오에서 대형 인센티브 단체 유치를 위한 기업간거래(B2B) 상담회를 시작으로 13일 베이징에서 한중 업계 관광교류의 밤, 15~17일 상하이에서 K-컬처 로드쇼, 15~16일 선양에서 강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홍보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

관광공사는 중국 각지의 유력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강원,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입소문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세대 교류로 이어질 수 학여행 단체의 방한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 임성연 기자



경복궁 항원정

### 경복궁 밤 산책하며 국새 찍어볼까

23일부터 예매권 추첨 응모

내달 8일부터 수~일요일 진행  
전통 공연·궁중 음식 체험

1895년 10월 일본군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벌어졌던 건청궁 일대를 둘러보며 고종(재위 1863~1907)과 경복궁 북측 권역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별빛야행 관람객에게만 허락된 취향교를 지나 만나는 항원정의 야경은 프로그램의 백미로 꼽힌다.

이번 하반기 별빛야행 행사는 예매권 추첨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23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http://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권을 응모한 뒤, 당첨되면 관람을 원하는 최종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예매하는 방식이다.

예매권 응모는 한 계정(ID)당 한 번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오후 6시 40분, 오후 7시 40분에 각각 시작하며 회차당 정원은 32명이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공연 관람 시야 제한석 5만5천원)이다.

/ 양수민 기자

### 내달 경주서 국악 창작극 '오줌싸개 보희의 꿈' 공연



국악 창작극 '오줌싸개 보희의 꿈' 공연 모습

국악 창작극 '오줌싸개 보희의 꿈'이 9월 2일부터 29일까지 경북 경주에스포대 공원에서 공연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창작극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신라문화기반 상설공연사업 공모에 선정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에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매몽 설화'를 각색했다.

신라 김유신 장군의 누이 보희와 문희 자매가 서로 꿈을 사고팔아 김춘추와 문희가 혼인한다는 이야기 속에 신라 문화환경, 혼례 등의 모습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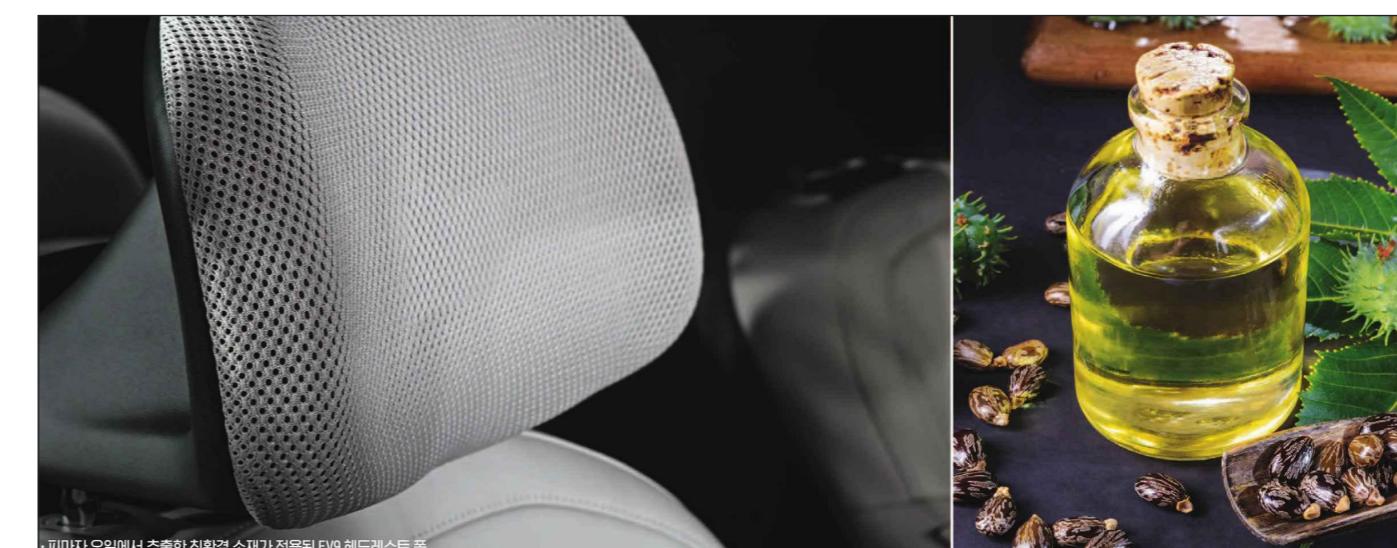
또 국악과 무용이 중심을 이뤄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고 공연단인 가람예술단은 전했다.

가람예술단은 2008년 동국대 한국음악학과를 동문을 중심으로 설립돼 한국전통예술의 명맥을 잇고 있다.

입장료는 3천~5천원이고 공연 입장권은 티켓링크와 네이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살 수 있다.

김성조 공사 사장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국악 창작극 '오줌싸개 보희의 꿈' 공연에 지역민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강효정 기자



가치의 재발견

작은 피마자 열매는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로  
건강한 육수수는 포근히 몸을 감싸는 시트로

자연으로부터 온 소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가치의 재발견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울비른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HYUNDAI  
MOTOR GROUP



###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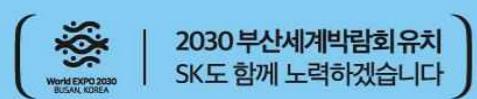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기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2285호 (2023-06-26 ~ 2024-05-31)

신한투자증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WAVE

자녀분이  
아직 청년이라면  
꼭 물어보세요

넌 그냥 청년이야?  
0청년이야?

### 0 청년 요금제 😊

데이터 최대 50GB 추가  
매달 1회 커피 & 영화 50% 할인 / 로밍 50% 할인

### 0 청년 더 줌 프로모션 😊

무신사 만 원 쿠폰 / 테더링 데이터 2배  
우티 택시 5천 원 할인 쿠폰 / 100% 당첨 기프트

### 0 day 😊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더 받는 푸짐한 혜택  
(노티드 / 캐리비안베이 / 써브웨이 / CU & GS25 등)

무신사 및 우티 택시 쿠폰 증정: 6.1~8.31. | 테더링 데이터 2배 프로모션: 6.1~11.30. | 당첨 기프트 프로모션: 6.1~8.31.  
0 청년 요금제 및 0 day 혜택 관련 상세 내용은 월드 홈페이지 참고 | 0 청년 더 줌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www.skt0-event.co.kr](http://www.skt0-event.c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SK telecom

## 황선홍호, 정상빈·권혁규 등 9월 올림픽 예선 대비 26명 선발

28일부터 창원서 소집…9월 3일까지 훈련 뒤 최종 명단 23명 확정

대한축구협회가 9월에 치러지는 2024 파리 올림픽 1차 예선 겸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 B조 경기를 대비하고자 올림픽 축구대표팀 26명의 소집 명단을 발표했다.

축구협회는 22일 “예선 참가 엔트리는 23명이지만 부상 발생 등의 변수를 감안해 26명을 선발했다”라며 “22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올림픽 대표팀은 28일 창원에서 소집돼 9월 3일까지 훈련을 진행한 뒤 23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내년 올림픽 대표팀을 모두 지휘하는 황선홍 감독은 해외파와 K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바탕으로 지난 6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까지 소집 명단에 포함했다. 해외파는 최근 셀틱(스코틀랜드)으로 이적한 권혁규와 베엔 비스바덴(독일 2부)에서 뛰는 이현주,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정상빈(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를 해외파는 소집훈련에는 불참하고 최종 명단 23명에 포함되면 9월 4일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올해 U-20 월드컵에 출전했던 멤버 중에선 골키퍼 김



기자회견하는 황선홍 감독  
준홍(김천)을 비롯해 배준호(대전), 박창우(전북)가 포함된 가운데 이태석, 김신진(이상 서울), 엄지성(광주), 강윤구(울산), 김주찬(수원), 이진용(대구) 등 K리그1 무대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도 활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26명의 태극전사는 28일 창원에서 소집돼 9월 3일까지 훈련할 예정이다. 활 감독은 훈련이 끝나면 최종 명단 23명을 확정한다.

내년 파리 올림픽 아시아 1차 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안컵 예선 B조 경기는 9월 6~1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은 9월 6일 카타르, 9일 키르기스스탄, 12일 미얀마와 경기한다. 예선 11개 조의 각 조 1위 팀과 조 2위 가운데 상위 4개 팀, 그리고 개최국 카타르까지 총 16개 팀이 내년 4월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나선다.

2024 AFC U-23 아시안컵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겸해 치러진다. 대회 1~3위 팀이 올림픽 직행 티켓을 확보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 최종 예선 4위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 파리행에 도전한다.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 “파리 올림픽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의 대회이기 때문에 3전 전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황선홍 감독이 함께 지휘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9월 4일부터 창원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12일까지 창원에서 훈련한 뒤 13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로 이동해 15일까지 추가 훈련을 진행하고 16일 중국으로 출국한다.

/ 차형찬 기자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

### 두산 양의지, 2주 만에 1군 복귀…키움 3연전 벤치 대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핵심 타자 양의지가 2주 만에 1군 엔트리에 복귀했다.

두산은 2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키움 히어로즈전에 앞서 포수 양의지와 외야수 김태근을 1군 엔트리에 등록하고, 내야수 안재석을 말소했다.

양의지는 지난 8일 원쪽 엎구리 통증을 이유로 1군에서 빠졌고, 구단은 재발이 짖은 부상 부위임을 고려해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 양의지가 1군에서 말소된 뒤 두산은 3승 7패, 해당 기간 승률 최하위로 내리막을 탔다.

지난달 11연승과 함께 3위까지 올라갔

던 순위도 이제는 5위로 처져 가을야구 진출도 장담할 수 없다. 일단 양의지는 엔트리에 돌아왔지만, 포수 마스크를 쓰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이번 시리즈는 선발로 나가는 건 어렵다. (부상 이후) 아직 한 경기도 안 했기에 갑자기 힘을 쓰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의지의 시즌 성적은 타율 0.323, 9홈런, 44타점으로 두산을 공수 양면에서 진두지휘한다. 양의지가 1군에서 빠진 뒤 꾸준히 안방을 지켜온 장승현이 이날도 포수로 선발 출전한다. / 김민철 기자

### 홀리웨이전 앞둔 UFC 정찬성

#### “경기 전에는 두렵지만…이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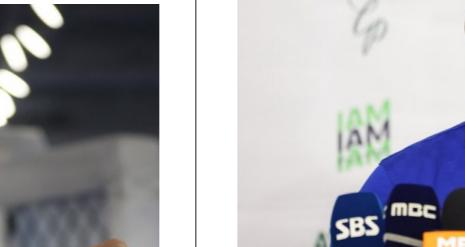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격투기 선수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36)은 현역으로는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일생일대의 맞대결을 벌인다.

26일 오후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릴 ‘UFC on ESPN 52 - 홀리웨이 vs 정찬성’이 그 무대다.

지난해 4월 생애 두 번째 타이틀 도전에 나섰던 그는 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불카노프스키(35·호주)에게 힘 한번 못 써보고 완패했다.

이후 큰 좌절감에 은퇴 가능성을 시사했던 그는 페더급 챔피언 출신의 맥스 홀리웨이(31·미국)의 도전장을 받아들여 일생일대의 도전에 나선다.

경기가 열릴 싱가포르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 정찬성은 22일 국내 언론과 화상 기자회견에서 “진짜 많이 준비했고, 100% 자신 있다”고 말했다.



### 박항서 인터내셔널 풋볼 아카데미, 30일 하노이에서 출범

/ 손현준 기자



홀리웨이에 맞서서 수립한 대부분의 전략은 숨기고 준비했던 것들 가운데 ‘카운터 펀치’만을 살짝 공개한 그는 “홀리웨이”에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준비한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UFC 대회가 다시 열린다면, 홀리웨이전 승패와 무관하게 은퇴 경기로 삼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년여의 동행을 마쳤다.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의 베트남 전수를 위한 ‘박항서 인터내셔널 풋볼 아카데미’를 시작 한다.

박항서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디제이 매니지먼트는 22일 “오랜 준비 기간을 마치고 오는 30일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 클럽 빌딩에서 ‘박항서 인터내셔널 풋볼 아카데미’ 공식 런칭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베트남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동시에 맡은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의 사상 첫 아시안게임 4강 진출(2018년), 동남아시안(SEA) 게임 축구 2회 연속 우승(2019,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 혁혁한 공헌을 하며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은 뒤 올해 1월 5

년여의 동행을 마쳤다.

박 전 감독은 베트남 유소년 축구 전을 위한 풋볼 아카데미 설립에 힘을 쏟았고, 메인스폰서인 HD 현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오는 30일 하노이에

서 ‘박항서 인터내셔널 풋볼 아카데미’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박 감독 측은 “현재 하노이의 초등학교 한 군데서 ‘박항서 인터내셔널 풋볼 아카데미’ 운영에 나섰다”라며 “이번 런칭 행사를 통해 여러 군데로 장소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백건우 기자



### 여자 프로배구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최고 대우로 3년 재계약

감독(2010~2019년)을 뛰어넘어 역대 여자 프로배구 최장기간 재임 감독이 된다.

김 감독은 2016년 도로공사 감독으로 부임 이래 2017-2018시즌 도로공사의 창단 최초 통합우승(정규리그·챔피언 결정전)을 이끌었다.

이어 지난 시즌에는 흥국생명 2연승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대역에 우승으로 두 번째 축배를 들었다.

도로공사 구단은 “창단 후 V리그 우승을 두 차례 달성하고 뛰어난 선수단 관리 능력으로 팀이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 김 감독과 재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기념비적인 역스윕으로 우승을 달성한 김종민(49) 감독과 여자부 역대 사령탑 최고 대우로 3년 재계약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2026시즌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김 감독이 계약 기간을 채우면 10년간 도로공사를 지휘해 이정철 전 IBK기업은행

### LG HelloVision

###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 '천박사 퇴마 연구소' 강동원 "신나게 볼 수 있는 모험 활극"

"오컬트보단 액션에 가까워"…김성식 감독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을 것"

"정말 모험 활극 같은 영화예요. 신나고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추석에 개봉하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하 '천박사 퇴마 연구소') 주연을 맡은 배우 강동원은 22일 서울을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깨뚫는 통찰력과 타고난 말솜씨로 퇴마사 행세를 하는 천박사(강동원 분)가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유경(이솜)의 의뢰로 무시무시한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다.

강동원은 '검은 사제들'(2015)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제를 연기한 바 있다.

네이버 웹툰 '빙의'가 원작인 이 영화는 퇴마를 소재로 하지만, 현대적인 설정으로 새로운 느낌을 더했다.

천박사는 유튜브 퇴마 채널 '하늘천 TV'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로, 그는 "무당분들의 유튜브



'천박사 퇴마 연구소' 출연진과 감독

팬 램을 하듯 주문을 된다. 그의 동료 인 배(이동휘)는 기술 담당으로, 원격조종 폭파 장치와 조명탄 등을 활용한다.

강동원은 굿 장면에서 무속인보다는 래퍼처럼 보인다는 말에 "대본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그는 "무당분들의 유튜브

를 보면서 연구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는 역동적인 액션 장면도 많다. 천박사는 귀신을 잡는 무기인 '질성검'을 휘두르며 검술을 펼친다. 속도감 있는 자동차 추격 액션도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김성식 감독의 연출 데뷔작이기도 하다. 김 감독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흥원찬 감독의 '다면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조감독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김 감독은 '천박사 퇴마 연구소'에 대해 "코미디, 액션, 미스터리, 활극, 판타지가 다 들어 있다"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영화 제목의 '설경'은 귀신을 잡기 위한 문양이 그려진 부적으로, 천박사의 비밀과 얹힌 중요한 소재다.

김 감독은 설경이 충청도 지역의 전통 굿에서 쓰인다며 "그 기원을 찾으려고 공주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실제로 작업한 선생님들을 뵙고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는 천만 영화인 '베테랑'(2015), 942만명의 관객을 모은 '엑시트'(2019), '모가디슈'(2021), 올해 여름 흥행작 '밀수' 등을 내놓은 제작사 외 유네강의 작품이다.

/ 흥민 기자

## 아이유, 내달 첫 팬 콘서트 개최 데뷔 15주년 기념

9월 23~24일 케이스포돔

가수 아이유가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팬 콘서트를 연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의 데뷔 15주년 기념 팬 콘서트 'I+UNIVERSE'를 다음 달 23~24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KSPO)돔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팬미팅과 콘서트를 결합한 형식의 이번 팬 콘서트는 아이유의 음악과 함께 팬덤 유애나와 아이유가 밀도 높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으로 채워진다.

아이유는 데뷔 후 처음으로 여는 이번 팬 콘서트를 위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아디어를 냈다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아이유가 팬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공식 행사는 2019년 열린 데뷔 11주년 기념



팬미팅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아이유는 지난 20일까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갤러리아 포레 더 서울라이티움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 '순간(Moment.)'을 열었다.

/ 이은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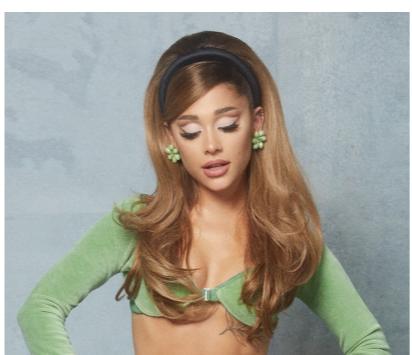
## 아리아나 그란데·데미 로바토 등 스쿠터 브라운과 결별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와 데미 로바토가 스쿠터 브라운 하이브 아메리카 CEO(최고경영자)와 갈라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하이브가 지난 2021년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인수한 이타카 홀딩스 산하 SB 프로젝트 소속이다. 미국 빌보드는 21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아리아나 그란데가 오랜 기간 매니저였던 스쿠터 브라운과 헤어졌다"고 보도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 2013년부터 스쿠터 브라운과 그가 이끄는 SB 프로젝트와 함께 해왔다. 그는 스쿠터 브라운과 함께하는 동안 발매한 6개 앨범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려놓는 성과를 냈다.

빌보드는 이와 함께 또 다른 SB 프



로젝트 소속 가수 겸 배우 데미 로바토가 스쿠터 브라운과 결별했다고 보도했다.

또 SB 프로젝트의 간판 스타 저스틴 비버까지 최근 스쿠터 브라운을 떠났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한편,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한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 박소희 기자

## '아라문의 검' 아스달 최초의 왕

장동건, 범접 불가한 지배자의 묵직한 오라

드라마다.

공개된 포ster 속 아스달 최초의 왕이자 권력의 정점에 선 지배자 타곤의 카리스마 뒤로 고독과 불안이 엿보인다. 누군가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보는 눈빛 역시 평정심이 흔들린 듯하다. 거칠없고 위용이 넘치던 과거 타곤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색다름을 선사한다.



아스달 최초의 왕 장동건의 불안한 시선이 포착됐다. 오는 9월 9일 토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아라문의 검'에서 타곤 역으로 돌아온 장동건의 캐릭터 포ster가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아라문의 검'은 '아스달 연대기' 시즌2의 새로운 이름으로 검의 주인이 써 내려가는 아스달의 신화, 태고의 땅 아스에서 서로 다른 전설을 써가는 타곤, 은섬, 탄야, 태알하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이다.

/ 황윤주 기자

## NCT 소속 해찬, 하와이 산불 구호성금 5천만원 기부

보이그룹 NCT 소속 해찬(본명 이동혁)이 하와이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활동에 써달라며 성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대한적십자사를 22일 밝혔다.

해찬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하와이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찬이 기부한 성금은 미국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활동에 쓰인다.

앞서 해찬은 브루크lyn·시리아 자진피 해 복구 성금 1억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 광민주 기자

##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http://www.wunionnews.com)

|   |      |        |                               |
|---|------|--------|-------------------------------|
| 회장·발행인  | 송원기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
| 편집인   | 조영광  | 대표전화   |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
| 인쇄소   | 아이피디 | E-mail | unionilbo12@naver.com         |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희진  | 등록번호   |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
|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함양에서 힐링을 산삼으로 건강을

# 함양산삼축제

제18회

일시 2023. 9. 7. (목) - 9. 12. (화)

장소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

주최 함양군 주관 함양산삼축제위원회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유아 험스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두 정세경 대표님’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